



꽃 한 송이에 공경심을 담아... 조계사(주지 세만)는 2009 어버이날 행사로 4월 30일 경내에서 '어르신, 당신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를 개최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행사는 젊은 날 국가 발전에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어르신들께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효'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에 앞서 조계사불교대학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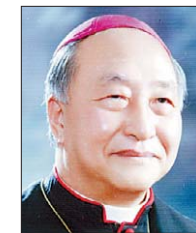
“이타행으로 인류에 공헌을”

달라이 라마 · 타종교지도자 등 봉축 메시지 발표

5월 2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내외 종교 지도자들이 불교계에 봉축메시지를 전달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한국 불자들에게 보내는 봉축 메시지를 통해 “불교도가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이타행”이며 “불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불교 이상택 교정원장은 “올해 봉축 표어처럼 사회적 어려움을 자비나눔 운동으로 극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원불교인들과 불자들이 함께 희망을 전하고 자비와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



달라이 라마.



정진석 추기경.

가자”고 말했다. 교황청 종교간 대화평의회 의장 장 루이 토랑 추기경은 “매년 부처님오신 날을 통해 가톨릭 신자들은 불자들과 인사를 주고받는 등 기존의 유대를 두텁게 하는 기회를 갖는다”며 “불자들의 초연(超然)과 자족(自足)의 본보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진석 추기경은 “故 김수환 추기경 선종때 불교계에서 보여준 애도에 깊이 감사

드린다”며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올해 봉축행사 주재인 ‘나눔은 기쁨 함께하세상’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오성 총무는 “불자들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 세상에 희망이 넘쳐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은은 기자

조승수 위원 보궐 당선

조계종 중앙신도회 조승수 지도위원(사진)이 4월 29일 국회의원(민주노동당 울산 북구) 보궐 선거에 당선됐다. 조승수(법명·無塵) 당선자는 중앙신도회 제23대 지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제24대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 불교계 생명윤리문제 통일된 '입장' 있나 없나?

4월 30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가 차병원의 체세포배 배아줄기세포 연구계획을 승인하면서 줄기세포연구에 세간의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황우석 박사의 연구팀이 연구가 묶여있던 3년 새, 황 박사만의 일명 '젓가락 기술'로 불리던 줄기세포 연구는 세계적인 생명공학 연구 트렌드가 됐다. 중단됐던 체세포배 배아의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되면서, 사회 각계에서는 윤리적, 합리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생명윤리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톨릭은 성체세포 연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불교계는 아직 관련연구에 대한 관심을 정립하지 못했고 인사를 비롯한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통일된 종교적·학술적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배아줄기세포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복제된 배아는 생명 △복제된 배아가 생명체이나 난치병 치료 등에 한해 사용가능 △특정 기준 이전 배아는 세포로 이용가능 등으로, 불교계 의견은 아직 모아지지 않은 상태. 이에 2004~2005년 조계종 총무원에 '불교생명윤리 정립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

별 연구를 실시했다. 당시 불교생명윤리 연구위원회는 2005년 12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라는 주제로 공개 심포지엄을 열고 연구 성과를 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생명조작분과위원으로 연구를 진행한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화과과) 우희중 교수(서울

대 수의학과), 허남결 교수(동국대 윤리문화학과) 3명은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불교생명윤리에 어긋난다'고 도출했으나, 기타 반대 의견으로 유보 입장을 취했다. 당시 미산 스님은 “성급하게 배아가 생명체다 혹은 생명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중간은 볼 수 있지만 끝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고 유보하며, “생명과학 연구추이를 주시해 타당성있는 과학적 해석이 도출될 때까지 연구

의견은 부분 '한 목소리'는 아직... 조계종 연구위 활동 종료 4년째... 공식 기구 없어 세계적 인식 변화·타종교 활동 '타산지식' 삼아야

필요가 없는 냉동 잉여난자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연구에 사용할 계획을 밝혀 윤리적 논쟁을 어느 정도 피한 부분도 있지만,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줄기세포 연구에 국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전세계가 연구 경쟁에 나선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황우석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돼 있는 동안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왔다.

미국은 작년 말 세계 최초로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해 개발한 척수손상 치료제의 임상허가를 받았고, 실명(失明) 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도 임상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 교토(京都)대 연구팀이 배아가 필요 없는 만능줄기세포(iPS)를 만들어 특허까지 받았다. 국내 연구재개로 인해 이제 곧 한국에도 관련기술과 상품이 등장해 사회변화에 따른 불교계 입장 정립과 윤리적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대 우희중 교수는 “불입부의 수태에 사용하고 남아법적으로 폐기될 자녀난자를 제공자의 동의에 사용하기에 현재 윤리수준이나 과학적 입장으로 볼 때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이번 기회에 생명과 생명윤리에 대한 불교계의 확고한 입장 정립의 장이 열린다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 뿐만 아니라 대다수 불교계 학자들은 불교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계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는 교리를 통한 이론무장과 홍보, 실천행을 통한 합의과정은 필수. 교계가 줄기세포 연구 승인을 계기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명확한 관점과 윤리적 대안 제시에 나설 수 있기를 귀추가 주목된다. 노덕현 기자 dhaval@buddhapia.com

선지식을 찾아서
▶14 설정 스님

법어집 출간
▶18 보성 스님

법구경
원한보다 저주보다
잘못된 내 마음이 주는 재난이 더 크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유공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능 만드는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합적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소나 및 용서, 법구경도 법종서 전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성공키(3.5x5cm) 규격 2권
문의 (02)722-1850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 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교찰 소백산 용문사

얼려라! 두리안 전문
보이차, 각종 차음, 생활 도자기
창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점 배송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용문사 전경 |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 용문사 천불전 |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 용문사 만동불사 | 성보박물관 | 팔상탱(보물 제1330호) |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465호)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교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목각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들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보문사, 장안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탕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용문사 오시는 길
버스: 동서울터미널 출발 (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승용차(서울):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 I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함창 IC
승용차(부산):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승용차(대구): 중앙고속도로 → 인동 → 예천 IC

삼사순례도
대승사 10분소요 | 김용사 30분소요 | 보문사 30분소요 | 장안사 30분소요 | 부석사 50분소요 | 청량사 40분소요 | 명봉사 50분소요 | 용문사 10분소요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에서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 전용 저수지 있음
방생차량 대형 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교찰 소백산 용문사 |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우)757-800 / 전화: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054)655-8405